

성서와 커뮤니케이션

한국에 프로테스탄트가 전래되어 8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끼친 영향을 여러 가지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것을 든다면 민족 정신 문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말>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흔히 우리 나라의 교회 신앙을 타계주의적인 색채가 짙다고들 하지만, 지나간 반세기간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타계주의, 묵시주의적인 신앙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여건들을 참작한다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탄압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겨진 민족은 오래 타계를 바라는 종교심이 생겨지게 마련이고 유대 민족의 묵시 문학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꼼꼼히 생각하면 한국의 민족 정신, 한국적인 에토스와 로고스의 정화는 이러한 타계적 묵시적인 신앙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의 말이란 그릇 속에 담겨지는 것이며, 그것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겪으면 겪을수록, 거기에 참다운 민족의 사유가 생명력을 얻는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일과 사유의 바탕을 종교적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그리스도교적으로 순화하는 데는, 한국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트의 타계적, 묵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신앙은 우주적이면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독립 선언문의 문맥에서

도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인 <공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한 민족이 독립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독립 운동 자체는 피비린내나는 처참한 것이었지만, 그 선언문의 문맥은 결코 애절이나 간청이 아니며, 맹렬한 항거문도 아니요, 다만 우주적인 공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함으로써만, 세계의 공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순순히 타이르는 훈계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훈계는 일본이나, 세계 열강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타이르는 내용이였다. 일찌기 우리 나라 사상에서 이렇게 원숙하고도 변증법적인 선언문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해서, 대외적인 주장과, 동시에 철저한 자아 혁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일시적인 선동이나, 근시안적인 혁명의 구호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표현이 심광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독립 운동을 한 분들의 태반이 크리스천 지도자 및 신자들이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사고의 표현에서 우리 민족의 사고와 행동에 하나의 지표적인 비전을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여야 한다. 지금에 와서, 우리 성서의 번역문을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의 성서가 그대로 우리 나라의 수년의 역사에 비전과 사고의 바탕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독립 선언문 속에서 신약의 산상 수훈과 비슷한 입김과 스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한 나라에서 성서가 그 민족에게 주는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을 새삼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한 영향이 지대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한 성서의 번역이 얼마나 중대한 사

업임을 절감하게 된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 국가를 석권하였을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Diaspora)은 저들의 모국어인 셈어와 희랍어를 동시에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를 휩쓸던 희랍 문화의 영향이 강력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히브리어 성서를 아랍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희랍 세계에서는 희랍어(70인역)로 번역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신앙과 갈망을 담은 성서가 애당초부터 번역이라는 어려운 사업을 통해서 유대 사람 자신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번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팔레스티나에 탄생할 적부터 번역되어진다는 운명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번역문학의 으뜸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서의 번역에는 슬한 극적인 사건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사에 끼친 최대의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성서를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루터파, 칼빈파, 그리고 앵그리칸 교회가 제각기 전용 성서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영역 성서만 하더라도 16세기 이후 영어 자체의 변천을 참작하여 여러 변화를 겪어 왔었던 것이다. 번역의 <다양성>과 아울러 한 언어의 <변화 발달>이 성서 번역에 가장 근본적인 난문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도리는 없을 것

이다. 그리고 신구약 성서의 고대역본에 관한 비판, 연구와 apparatus criticus는 20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치 못했던 성서 번역의 폭넓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고전 문학 작품 번역보다 오히려 성서 번역에서 우리는 말과 글의 근본적인 문제(신학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즉 철학적인 문제성을 찾아 보게 된다. <번역—translate>한다는 말과 <옮긴다—transfer>의 말은, 어원을 따지면 라틴어의 같은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한 가지 언어로 말한 것을 다른 말에 <건너—across> <들고 간다—carry>는 뜻이다. 이렇게 한가지 언어를 들고서, 다른 말로 옮겨가는 중에 가끔 떨어뜨리는 것이 생겨진다. 즉 이 세상에는 완벽한 번역자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언제나 두 개의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의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간단한 예로서 플라톤의 <대화—Dialogue>는 희랍어로 서술된 것이지만, 이 책을 이해하려면 5세기 아텐에서 문제가 되던 일과 당시의 지적인 분위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없이는 이 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은 이러한 당시의 희랍의 역사적인 정황과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표현 양식에 익숙하지 않고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번역이라는 행위도 그 근본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간의 근본 행위(Roger Mehl)라고 할 수 있다. 헨드릭 크레이머는 커뮤니케이션을 Communication between과 Communication of의 둘로 나누어서 이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p.11). 여기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번역한다는 일은 분명히 Communication between에 속하는 기

본적인 인간 행위이다. 그러나 번역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그 사명을 다하려면 거기에는 〈Communication of〉라는 내용이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충분히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따르는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자주 논의하고 있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지 그것이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다. 앞서 인용한 크레이머의 말과 같이 복음 전달이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하고 또한 그러한 여유를 두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복음 전달을 하는데 있어서도 현대 세속 문화와 영합하는 방법을 쓰는 일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구미를 돋굴 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듣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코 문화를 가장하여 매력을 가져보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언어의 기능과 시

바벨 탑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은 저들의 말을 혼란케 하는데 있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11:6)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언어의 혼란이 따른다. 내용이 없는 무의미한 언어가 난무한다는 것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절곡이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예23:29).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땅이 녹았다고 하였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다(히12: 25~26). 말이 가지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성서의 말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매개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라 함은 말의 상징과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대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히 이해되어진다고 단정을 내릴 수도 없다. 서로가 생각하는 전제와 편견이 다르면 아무리 대화를 거듭하여도 진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지 못하다. 어떤 때는 이러한 대화가 이해를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성서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 같은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혼란이 생겨져고 있다. 언어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첫째는 말의 논리적인 기능이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였다” “다윗왕은 칠년간 유대를 통치하고 통일된 국가를 삼십 삼년 통치했다” 이러한 문장은 하나의 전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성서의 역사적인 지식의 단편은 이러한 전제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② 의례적인 기능이다. 말의 의례적인 기능이란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 받는 인사 말에서 보게 된다. “안녕하시오” “요즘 어떠시오” 등은 말의 서두에 나오게 된다. 종교적인 언어에도 이러한 의례적인 언어가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의례적인 말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친근미나 조화를 주는

때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이 의례적인 언어이지만 거기에서 논리적인 전제나 기능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나 혼란이 생기게 된다.

③ 지시적인 기능이다. “문을 닫으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같은 말은 하나의 지시를 나타내는 말이다. 정치적인 연설이나 웅변에서 이러한 말을 자주 듣게 된다.

④ 표현하는 기능이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 편견 등을 나타내려고 할 때 표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저주, 노래, 감탄의 소리 등을 표현적인 기능을 가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시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은 표현 기능하고도 밀접한 것이긴 하지만 시적인 기능은 표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상대에게 전달(Communicate)한다는 적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리듬, 회화적인 묘사, 음악적인 말, 은유, 반복, 발음의 대조 등으로써 감정의 질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말의 시적 기능인 것이다. 시는 호소하고 시사하고, 아름다움에 굴복한다. 시적인 언어는 가치를 전달해 준다.

우리는 성서의 말에서 위의 다섯 가지 언어로서의 기능을 볼 수가 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라든가 “아멘”이라고 하는 의례적인 기능을 가진 언어 표현을 볼 수 있다. 또 설교에도 논리적, 표현적, 지시적 그리고 시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기사에도 언어의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교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능력에 대한 시적인 전달 기능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연에서 겪은 경험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인간상과 커뮤니케이션

요즘 일본이나 한국에 있어서 인간상의 문제가 대단히 논의되고 있다. 학교, 사회,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이상형(Idealtypus)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 동안 인간 개조의 문제가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문제가 문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를 너무나 소홀히 정치적인 구호로 사용하였고 그 근본적인 성격을 다루기란 가장 힘든 것이기에 현상의 근처에 가라앉게 되었을 뿐이다. 아무리 정치 사회 제도를 이상적으로 뜯어 고쳐 놓아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사회에서는 암흑과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그러면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

1952년에 화란 잡지 *Wendung*에 H. Hoekendyk 박사가 기고물 하여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을 가한 일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대 교회는 문화적인 포근한 환경 속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 3의 사나이>의 존재라고 하였다. 즉 그가 말하는 <제 3의 사람>이란 하나의 소시민적 세계의 산물이며 고전적 그리스도교 문화의 이상이었던 인격 도야의 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 4의 사람>에게는 그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였다. <제 4의 사람>이란 이를테면 아직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적인 인간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이 인간의 특징은 <항거하는 연합주의자>라고 한다. 이 인간은 20세기의 종말을 고하는

Post-Christian (그리스도교 이후) post-bourgeois, post-personal 한 인간상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H. Hoekendyk 가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인데, 요컨대 미래의 인간상은 개인적인 인격적 결단을 내릴 기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대로의 전도 방법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저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 전도는 그만 두고, 그룹 전도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교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것이지만 현대의 심층 사회학의 발달과 아울러 고려의 여지가 있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서의 용어나 표현은 우리의 신앙과 선교의 원형이며, 그것을 무작정 독단적인 해석을 하여 신학적인 전제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성서에서 말하는 <죄> 혹은 <구속>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삶의 정황에 있어서 언제나 타당한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크리스천들이 추구하여야 할 것은 어떻게 하여 성서의 말씀에 충실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스타일을 형성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스타일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묶어진 독단의 스타일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속 세계는 근본적으로 스타일이 없는 세계이다. 오늘 우리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붕괴라는 문제에 대하여 참된 해답을 제시하려면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스타일이 필요하다. 참된 크리스천의 생활 스타일이란 그리스도교적인 자유(liberty)와 금욕(asceticism)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에는 시가 있고, 시가 있는 생활에는 성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따라 오게 될 것이다.